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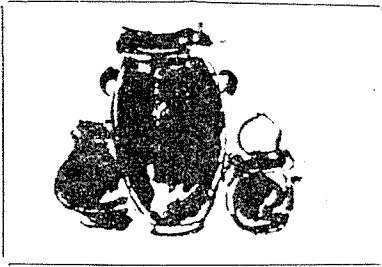
가정보건 시범사업

박 광 서

서울에서 약 한시간 편안한 자세로 수원까지 와서는 다시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엉덩방아를 수없이 짙으면서 서해안쪽으로 또 한시간쯤 버스를 타고 달리다 보면 그 유명한 발안장(향남면 소재지)이 나타난다. 발안이 유명하다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. 하나는 일정시대에 순수한 농민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무자비한 왜인들이 우리 동포들 스물여섯분을 교회안에 감금시켜놓고 불을질러 학살했던 순국선열들이 잠들어있는 곳이며 또 하나는 이색적인 「똥장사」가 이곳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

보건향상을 증진시키려고 일종의 보건시범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.

「똥장사」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여기에서 벌이는 시범사업의 주요한 내용이 기생충구충 및 예방사업과 가족계획 및 영양개선 사업이라서 본인이 점변을 위한 채변수집 독려차 오토바이를 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얻은 별명이다. 「딸아들 구별말고 들만 낳아 잘 기릅시다」 하는 말만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계획사업만을 하던 내가 「기생충을 몰아내자」고 열심히 외쳐대고 다니니까 내 스스로도 격에 맞지않는 어색한 생각이 들기도 하



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을 볼 때 보람과 흐뭇함을 느끼곤 한다.

원래 가정보건사업은 일본가족계획 국제협력재단의 상임이사인 「구니」씨의 착상으로 가족계획과 기생충사업을 통합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사업으로서 태국, 인도네시아, 대만, 필리핀, 일본 및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특수한 보건공동사업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3월에 이 사업을 위해서 대한가족계획 협회와 학국기생충박멸협회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에 말한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(발안)에 가정보건사업소를 설치하고 연간 약 2천만원의 외원자금을 지원받아 향남면 뿐만 아니라 인근 4개면을 포함하는 인구 약 5만명에 대해서 가족계획, 기생충 구충 및 예방사업, 영양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사업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기초의료사업과 자립사업을 행하여

추진하게 된 것이다.

현재는 시범사업의 착수단계이며 군에서 무상으로 지어주는 사업소 건물도 11월 초순이나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사업소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한 뒤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.

현재로서는 지역사회 지도자들, 기관장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이 시작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보건문제에 대한 재인식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대로 기생충구충사업이 현지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았다. <자기들 몸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꺼내주기 위해서 변을 가져오라는데 누가 안 가져와?> 하던 생각은 지금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느껴진다.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주민접촉 전략을 구상한다.

우선 가족계획이다. 기생충이다 아무리 의쳐보았자 주민들에게는 사치한 이야기이며 오직 그들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일이 우리 사업소가 해야 될 당면과제인 것 같다.

이 사업을 위해 기업에서 여러번 현지에 나오셨던 분들에게 나는 체면걱정은 말라고 장담했었다. 돈도 받지 않겠다는데 안될 게 뭐 있는

냐고…… 하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
않았다. 물론 국제세미나에
보고서를 빈약하지 않게 하기 위해
서 단시일내에 해치우려고 생각했
던게 계산착오였던것만은 틀림없
었으나 주민들 말대로 내 처음의
「채번수집계획」은 그리 수월한 것
은 아니었다.

내가 한가지 장담을 하고 자신을
갖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은 그들
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하
려고만 한다면 무엇이냐 해치운다
는 데에서 주민들의 인식만 어느정
도 바뀌지면 이 시범사업도 순조롭
게 진행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.

일제에 항거하여 죽음으로 맞섰던
선열들의 자손답게, 그리고 도시
변두리지역 (서울서 2시간 정도)답
게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들이 강직
하며 지역특유의 배타심같은 것도
여의 농촌지역보다는 드세다는 것
을 느꼈기 때문이다.

3년동안 나는 현지에서 그들과
함께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내나름
의 차기희생과 봉사를 실천해보이
려고 다짐하고 있다.

때문에 서울에 있는 동료들이 내
백타이를 맨 모습을 보기가 앞으로
는 더욱 어려워질것은 틀림없다.

〈필자=화성 가정보건 사업소장〉

토
막
상
식

위산과다증(胃酸過多症)은

과산(過酸)이더라도
아무 증세가 없을 때는
병이라 할수 없고, 어떤
증세가 과산으로 인하여
생겼을 때 비로소 병으
로 인정하게 된다. 이것
을 위산과다증 또는 과
산증이라 한다.

위산과다증은 위액산

도가 높고 위액 분비량
이 증가하며 심트림, 트
림, 가슴앓이 동통등 여
러가지 증세가 나타날
경우를 말한다.

이것은 자극성 음식물
에 의해 많이 생기는데
맵고 짠음식을 좋아한다
던가 음주 담배 태우는

습관등이 위산과다의 원
인이 되기도 한다.

대체로 식욕이 왕성하
고 공복일때는 곧잘 명
치 부분에 아픔을 느낀
다. 이증세는 위산과다
증의 중요한 증세이다.

치료법으로는 식이요
법과 약물요법이 원칙인
데 식이요법으로는 폭음
폭식을 피하는 것이 가
장 중요하다. 특히 음주
는 증세를 악화시키므로
금해야 한다.